



# 전주매일



## 건설현장서 위험한 작업 로봇이 수행

### 국토부·전북자치도·전주시·전북대·건설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 협약 체결 전국 최초 시범사업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구축...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

건설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활용이 확대돼 위험한 작업은 줄고 건설 안전과 생산성은 높아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신규)·전주시(시장 우범기)와 '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기관이 손을 잡고 건설 산업의 AI 대전환을 이끌 건설 AI·로봇 중심의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공 현장에서 직접 기술을 검증하는 실증(RC) 기회까지 제공한다.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돼 온 스마트건설 기술을 지방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며, 이를 뒷받침할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주도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연구원은 축적된 건설 기술력을 바탕으로 입주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북대학교는 센터 공간 제공과 전문 인력 양성을 맡고, 입주 기업

을 위한 기술자원 사업까지 함께 추진해 건설 산업의 AI·로봇화 전환에 속도를 더한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아 거점 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의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해 온 스마트

건설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지방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권역별 혁신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 과 건설 AX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전국 최초로 우리지역에 시도하는 AI 건설·로봇 혁신센터는 지역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스마트건설 혁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해 AI 기반 스마트건설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등이 11일 전북대에서 로봇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전북선관위 "교육감 선거 개표 오류 깊이 사과드린다"

### 6·3 지선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 투표록에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 개표 결과 착오 입력하는과정서 오류 선관위, 재발 방지 위해 투표록 작성 시스템 개선·관련 지침 정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개표 결과 착오 입력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선관위는 11일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전북도교육감선거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국민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스템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전원에게 오류 발생 경위와 조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표록 작성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표 결과 입력 과정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업무편람과 지침을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제3투표소의 투표록에 투표소 명칭이 제1투표소로 잘못 기재됐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개표 결과를 제1투표소 결과로 착오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전북선관위는 사과문 말미에서 "국민과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을 완벽하게 관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정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실제 개표 결과와 비교해 투표수 110표, 이만호 후보 득표수 82표, 전호성 후보 득표수 43표, 무효투표수 5표의 차이가 발생한 상태로 개표 결과가 공개됐다. 다만 선관위는 해당 오류가 최종 당선인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관리의 정확성과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지켜내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도민들은 선관위의 사과와 후속 조치가 단순한 유감 표명예 그치지 않고 보다 철저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날 위원회를 열어 착오 기재된 개표 결과를 수정 의결했으며, 수정된 결과가 대국민 선거정보

로 공개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아프리카의 다채로운 이야기, 전주에서 만나다

### 제8회 아프리카영화제 14일까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15개국 작품 무료 상영, 특별 GV·씨네토크 프로그램도 운영

아프리카영화제는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 대해 갖고 있는 선입견을 해소하고,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모습을 영화로 소개하기 위해 한·아프리카재단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표적인 문화 교류 행사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나이지리아와 르완다, 모로코, 알제리, 이집트, 잠비아, 튀니지 등 아프리카 15개국의

작품이 상영될 예정으로, 시민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아프리카 영화들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음악과 도시, 청춘 가족, 정치와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담은 작품들을 통해 아프리카 사회의 생생한 현재와 문화를 관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 상영에서는 르완다 영화

킬러 뮤직(Killer Music)의 제작자이자 작가인 마이티 포포(Mighty Poppo)가 내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르완다계 캐나다인 뮤지션이자 영화 제작자인 그는 캐나다의 권위 있는 음악 경력을 가진 아티스트로, 영화에서 각본과 제작, 음악 작업을 직접 맡아 르완다의 전통음악과 공동체의 기억을 깊이 있게 담았다. 오는 12일에는 영화 상영 후 '음악은 어떻게 한 나라의 이야기가 되는

가(How Does Music Tell the Story of a Nation?)를 주제로 마이티 포포와 관객이 직접 만나는 특별 GV(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3일에는 시민과 관객들이 아프리카 영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영화 '카탕가: 전갈들의 춤' 상영 후 '백베스는 왜 아프리카 카로 향했는가'를 주제로 조원희 영화감독과 이화정 영화저널리스트가 함께하는 씨네토크가 마련된다.

/권희성 기자



#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

전주매일 캠페인